



애플은 항상 한 단계 높은 만족도 점수로 시장을 주도해 왔다. LTE도입은 국내 제조사보다 한 발 늦었지만 첫 LTE 모델 '아이폰 5'는 국내 제조사와 100점 이상 격차를 벌리며 역대 최고점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어서 '아이폰 5S'도 혁신적 터치 ID와 골드 컬러 도입으로 '아이폰 5'의 기록을 뛰어넘고 또 한번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 1위'의 위상은 2014년 하반기부터 주춤하는 추세이다. 아이폰 6, 6S, 7이 모두 '아이폰 5'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모델의 출시 초기 만족도가 776, 758, 745점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국내 제조사와의 격차도 그만큼 줄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호평을 받으며 시장에 진입한 '노트 1'에 반해 '노트 2'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지만, '노트 3'부터는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발전을 거듭해 마침내 '노트 7'은 772점으로 LTE 도입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애플의 '아이폰 6S'를 큰 차이로 압도했다. 그러나 최초의 만족도 1위 역전과 함께 열린 시장개편 가능성은 초유의 배터리 폭발, 리콜 사태로 물거품이 되었다. 삼성에는 통한의 악재였지만, 침체를 이어가던 애플에게는 천우신조였다. 이에 '노트 8'은 절치부심하며 배터리 안정성에 만전을 기했고, '아이폰 8'은 10주년을 맞아 혁신을 준비 중이다. 두 선도 제조사가 총력으로 맞붙는 2017년 하반기는 시장의 리더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갤럭시 S시리즈와 LG 제품들은 큰 혁신 없이 2군에 머무르고 있어 선두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가 필요해 보인다. 갤럭시 S는 2012년 하반기 '아이폰 4S'와 근접한 점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계속 낮은 성적에 그쳤고, '갤럭시 S6'로 침체 끝에 처음으로 700점대를 달성했으나 곧 다시 하락세를 맞았다. LG는 첫 LTE 폰 '옵티머스 LTE'의 성공으로 LTE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지만 '옵티머스 LTE 2'를 능가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는 지난달 31일 신제품 'V 30'을 발표하며 하반기 신제품 대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카메라와 디자인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큰 만큼 '노트 8', '아이폰 8'과 함께 삼파전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

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1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 결과는 '17년 상반기(25차) 이동통신 기획조사'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박경희 수석부장 Tel. 02) 6004-7619, Fax 02) 543-5984 e-mail: parkkh@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www.invight.co.kr

응답대상자	전국 14세~64세 휴대폰 사용자	[누적 표본구성 현황] 총 1,816,801명			
표본프레임	컨슈머인사이트 IBP (Invitation Based Panel)	차수	사례수	차수	사례수
표본추출방법	성별/연령 고려 할당 추출	25차	40,189	12차	87,426
자료수집방법	이메일 조사	24차	38,405	11차	88,876
표본 수	회당 4만명 (16차 부터) *15차까지 회당 8만명 이상	23차	39,355	10차	85,935
주요 정보	이동통신 이해 및 시장 Trend 파악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품질 경쟁력 파악	22차	40,172	9차	74,893
조사 주기	년 2회 (Bi-annual) 수행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자료 수집	21차	20,461	8차	76,469
		20차	41,874	7차	92,210
		19차	41,390	6차	100,615
		18차	42,195	5차	100,752
		17차	44,168	4차	100,901
		16차	73,365	3차	100,000
		15차	88,967	2차	110,455
		14차	81,344	1차	100,779
		13차	85,605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박경희 수석부장 Tel. 02) 6004-7619, Fax 02) 543-5984

e-mail: parkkh@consumerinsight.kr, homepage: www.consumerinsight.co.kr

For more Information

문의: 박경희 수석부장 Tel. 02) 6004-7619, Fax 02) 543-5984 e-mail: parkkh@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www.invight.co.kr